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기적 제목 : 기적의 하나님 성경:누가복음 8장
40-56절

- 40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 41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 42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 43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 4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마나이다
- 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 47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 49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 50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 51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 52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 53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54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눅8:40-56)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이란 자연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일이나 물리적 현상이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일상. 왜냐면 자연을 창조하셨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때.

아무리 창조하셨기로 스스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어길 수 있으신가?

-자연의 법칙은 지켜지도록 계획된 것이지, 자연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유일하게 자연법칙을 훼손시키는 자가 자연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니 아이러니다.)

-1차원에서는 2차원을 기적으로, 2차원에서는 3차원을 기적으로, 3차원에서는 4차원을 기적으로 인식한다. 즉, 기적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초월적 차원의 일상일 뿐이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을 3차원인 우리가 묘사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주권자로 표현한다.

-기적은 초월이며, 훼손이 아닌 초월적 차원의 권리행사이다.

-기적은 요술과는 다르다. 기적은 속임수가 아니다. 요술은 초월적이지 않다. 요술이란 교묘한 물리적 조작일 뿐이다. 요술은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기적은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주문을 외우면 된다고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달리다 굶'도 주문이 아니라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이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면 소녀가 일어나는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일어나는 것이

다. 주권자시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도 그 기적의 방법을 배워보고자 해서였다. 기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한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피조세계에 속해있기는 해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필요하다.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할 경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지혜와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자신의 뜻과 기도를 점점받으며 함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두 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즉, 교회가 중요하다.)

오직 사람만 영원을 갈망한다. 영원이란 초월적 세계를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꽃이 피고 지듯이, 만물이 순환하듯이 순환하지 않는다. 우리의 본적은 영원한 세계에 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갈망한다. 모든 사명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인이 된 이후로는 더욱 협력해야 하며, 마귀와 전쟁해야 한다.

기적은 필요하다. 기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삶은 대개가 무미건조하며 결국에는 최악의 울무에 묶이는 삶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고질화 되면 저주가 된다.

저주를 끊고, 최악을 이기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

이시간 자신의 죄와 저주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씻고 끊기 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어떻게?

-물리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행정적이지 않다.

-기적은 다분히 영적인 것이다.

-첫째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다.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50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둘째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가 도움이 된다.

41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옹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막7:28)

-자신의 처지가 기적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

-기적은 다른사람의 것이 아닌, 바로 나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윗의 아들 살려 달라는 기도가 기적을 바라는 건강한 태도가 된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으나, 결국 아들이 죽자 기도를 멈추고 식사를 시작하였다.

-즉 자기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었을 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기적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었을 때 의미가 있지 나의 욕심이라면 무의미할 뿐이다. 아멘.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다.

<찬양예배>

주제: 리더 훈련 제목: 리더의 자기점검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15:1-9)